영화 아닌 실제 매트릭스 탈출

(시편 18:1~50)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영화 아닌 실제 매트릭스 탈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영화 아닌 실제 매트릭스 탈출'

'매트릭스(Matrix)'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 혹은 모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화에서는 가상현실이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을 뜻합니다. 자율성을 가진 로봇들이 무의식 상태의 인간들을 창고 같은 곳에 눕히고 케이블을 연결하여 인간들의 머리를 지배합니다. 인간들을 가상현실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실제로 꼼짝 못한 채 누워서 가상세계를 현실로 느끼며 그 안에서 활발하게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 갇히지 않은 소수의 인간들이 사이버 공간에 갇힌 구원자가 되어서 자율성을 가진 로봇들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매트릭스 입니다.

요즘 가상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안경처럼 생긴 헤드셋을 쓰면 물안경의 유리부분이 스크린이 되어서, 화면속의 입체적 환경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극장에서는 3D를 넘어서 4D라는 것도 있어서 좌석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그랜드캐니언을 가는데 깎아지른 절벽에 부딪힐 듯이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비행기가 수직상승을 하거나 수직하강을 하면서 그랜드캐니언 물속으로 처박힐 것 같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스릴만점의 영상을 보여주는데 으악-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지면 만져질 것만 같은 거리에서 그랜드캐니언의 절벽을 근접 비행하는 체험을 하게 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입니다. Virtual

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현실감을 느끼지만 현실이 아닌 가짜로 만든 환경입니다. 진짜는 아니지만 거의 진짜처럼 느끼게 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말하는 가상현실의 이야기를 성경은 태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보는 모든 환경은 다 가짜 세계인 가상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을 때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상현실 체험관에 들어가서 그랜드캐니언 절벽에 부딪힐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눈과 머리는 가상현실 체험을 위한 헤드셋을 쓴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으면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현실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실제 현실이 아닙니다. 가짜 환경에 대한 현실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는 모습은, 헤드셋을 쓰고 절벽에 부딪힐까 허우적대는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몸에 병이 들든지 원수들과 대적자에 둘러싸여 공격을 받는 환경에서 이제 죽었다며 소리를 지르지만 그것은 진짜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초부터 생겨난 이 가상현실감을 극복하려는 다윗의 몸부림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억누르고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가상현실로부터 탈출 가능한 방법이 패턴화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부분을 살펴봅니다.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하나 같이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용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든 모든 대상이 방어를 위한 것들입니다. 구원의 뿔 또한 공격과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개념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끝없이 존재했던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대적들로 인해 위기로 점철되었던 모든 시점에서 자신이 승리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시편에 드러난 패턴을 따라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기를 맞이하여 다윗이 첫 번째로 보이는 행동은 마음을 탈출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4~5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하는데 위기 때문에 마음이 묶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적들이나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도 그 환경을 문제 삼지 않고

그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묶였음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돈 문제가 생기면 돈이 없는 상황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패턴대로라면 돈이 없는 상황에 마음이 묶인 것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 했던 것들은 모두 마음이 위기상황에 묶이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본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바위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마음이 육체적 위기상황에 묶이게 된 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의 경우 몸에 병이 생겼다면 병에 마음이 묶인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에 생긴 병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다윗은 병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그 마음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바위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묶이게 되자 6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합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접근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만 합니다. 사망의 줄이 묶듯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으로 묶인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 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직장문제 등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행여나 응답을 받았다고 여길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화수 떠놓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확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임하는 섭리의 차원이 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사망의 줄이 되어서 마음을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직 문제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문제에 마음이 얽매이는 것을 문제 삼아야만 합니다. 마음만큼은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그 안에 피할 바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빠져나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7~19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행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임재 하시는데 아주 기이하고 요란뻑적지근하고 너무 강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7~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라고 합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여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라고 하였고, 13~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렛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여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라고 기이한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기이하고 강렬한 임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무엇에 빼앗겨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찾아오는 길은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상황보다 더 강렬한 상황이 일어나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불이야!'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싸우던 부부가 힘을 합쳐 자녀들을 들쳐 업고 밖으로 달려 나갑니다. 그리고는 서로 얼싸안고 가족의 생명이 무사했음을 감사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동안에는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도대체 어쩌다 이런 사람과 만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지 원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생사가 오가는 강렬한 상황이 나타나자 마음은 더 이상 부부싸움에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제목을 '매트릭스(가상현실)에서 탈출'이라고 했습니다.
'현실(現實)'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실제 하는 사건이나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이 나의 주관적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 인도나 유럽에서 테러가 일어나도 큰 위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북한에서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면 큰 위협을 느낍니다. 사실 핵실험을 해도 전쟁이 일어날까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선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이 나의 현실이 되지는 못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마음을 주거나 피동적으로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만이 나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실과 상황에 마음이 보태질 때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또한 내 마음이 주어지는 가짜 사실일 뿐입니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교회나 학교도 사실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신앙인들에게는 천국이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사실입니다. 승천하신 주님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 중에서 내 마음을 주는 것만이 현실이 되고 또한 먼저 마음을 주는 것이 우선적인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과 남편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존재를 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남편과 함께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이 아니면 전부 가상현실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현실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진짜 현실이 아닙니다. 물론 남편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남편이 나의 마음을 빼앗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남편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존재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존재도 사실이지만 어느 것을 더 우선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서 나의 현실로 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세상을 우선적인 현실로 삼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럴 때에 기도의 내용과 판단은 가상현실 체험에 불과할 뿐 진짜 현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마음과 싸웠던 것입니다. 적들이 둘러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성전의 번제단에서 죽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여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기이하고 강렬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찌나 큰지 다윗은 마치 만화를 그리듯이 기이하고 강렬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 하셔서 세상일에 빼앗겼던 마음을 더 강렬하신 힘으로 해방시키셔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다음 19절을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한 것처럼 마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의 백미로서 29절부터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1~3절까지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그 안에 거할 바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가 모두 해소된 29절부터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선성 안에 머물던 자가 이제 담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물리적으로도 적들을 향해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34~35절을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나를 붙잡아서 활을 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가 처한 환경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뜻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뜻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현실로 삼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선적인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과 천국을 현실로 느낄 때에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내 남편은 사실이지만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

다. 하나님이 채워지면 다윗으로 하여금 적들을 뛰어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 붙이시면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직장동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선적인 현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의 문제에 빼앗겼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묶인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돈 문제에 묶이고 건강문제에 묶이고 자녀문제에 묶여서 그것들이 현실인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은 아득히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적인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께 머물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묶인 내 마음이 죽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묶인 마음이 죽게 해주세요. 돈에 묶인 마음이 죽게 해주세요. 가게에서 만난 손님에게 마음이 빼앗겼으니 죽게 해주세요.'라고 묶여 있는 상태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나에게 칼과 창을 겨누어 죽이려고 해도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칼과 창의 상황은 하나님의 몫이 되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판단하고 두려워 떠는 가상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글라이더를 타고 그랜드캐니언의 절벽에 돌진하면서 느끼는 가짜 현실감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세상에서 염려하고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마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환경에 묶이게 되고 환경을 우선적인 현실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에 판단하는 모든 것은 가상현실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사건과 상황에 묶인 내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보내어 머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했던 다윗처럼, 이 세상 현실은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고 발을 붙잡아 담을 뛰어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세계의 매트릭스를 날마다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지의 참 현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를 탈출하여 주님에 의해 준비되어진 진짜 세계

인 복지 안에 들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